

강진군, 영수증 이벤트로 '상품권 및 순금 당첨기회' 잡으세요!

지역경제 살릴 '강진읍시장 오감통 상권활성화 이벤트' 개최

강진군이 제54회 강진청자축제에 열기를 이어가고 지역 상권 이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강진읍시장 오감통 상권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읍 오감통시장 일원을 포함한 자율상권 구역내 164개 상가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는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감통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가장 주목받는

'청자날시' 이벤트는 강진 관내 점포와 청자축제장 내 점포의 영수증 합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하다. 매일 6명을 추첨해 '순금코인'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만 원 이상 이용 영수증 지참 시 룰렛 돌리기를 통해 1~3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강진영수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바자회, 머그컵 만들기 체험, 추위를 녹여줄 어묵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은 사업장 주소가 강진군인 점포여야 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 및 '강진 반값' 영수증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2011년 이전 출생자) 본인에 한해 1일 1회 가능하며, 접수 시 신분증과 결제 실물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강진원 강진군은 "청자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많은 분이 강진의 맛과 멋을 즐기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061-43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사계절 미식 이벤트 '맛·잇·나' 추진

나주밥상 먹고 인증하면 3만원... 최다 이용자 10만원 증정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나주 밥상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사계절 미식 이벤트 '맛·잇·나'를 본격 추진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나주밥상' 지정업소, 남도음식거리(영산포 흥어거리), '나주관광 10선'을 연계한 미션 수행형 이벤트 '맛·잇·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 고유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 소비를 지역 경제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겨울, 봄, 여름, 가을 총 4회차로 나뉘어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나주밥상 지정업소에서 식사 후 네이버 영수증 리부 또는 개인 SNS 후기를 작성하고 남도음식거리 또는 나주관광 10선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영수증과 사진을 전용 링크(네이버 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미션 완료자 중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몰 포인트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특히 회차별 나주밥상 지정업소 최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해 참여 동기를 높였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미식 체험이 관광지 방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특산물 구매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나주의 정갈한 밥상과 풍경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맛있는 나주 밥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벤트 관련 세부 사항은 나주시 공식 SNS 채널과 주요 관광지에 비치된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의 청년 인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0,92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완도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았다.

정책의 비전은 '청년이 다시 빛나는 완도'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떠나고 싶지 않은 완도', 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떠돌고

완도군, 일·주거·교육 등 청년 정책 수립 완료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41개 과제 단계적 추진

실은 완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일자리, 주거, 생활, 배움, 참여 등을 개별 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에 연결된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계획을 재정비했다.

이에 ▲일자리 ▲주거 ▲복지·금융 ▲교육·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의 총 41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연계해 총 3백여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어촌·영농 정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는 초기 정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증금 지원' 등을 마련했다.

「복지·금융」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희망 디딤돌 통장',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교육·문화」는 '장보고 장학금',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배움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관리' 분야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발전 협의체 활동'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정책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비문해·저문해 성인을 위한 '담양인문학 문해교실'의 2026년도 신규 교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담양인문학 문해교실은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금융, 교통, 키오스크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학습과 인문·정서 활동을 병행하는 마을 방문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생활 적응력 향상과 배움의 즐거움 확산을 목표로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 '담양인문학 신규 문해교실' 모집

마을로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운영 확대

문해교실은 학습자 규모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A형은 4명 이상 학습 희망자가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주 2회, 회당 2시간 수업으로 운영되며, B형은 1~3명의 소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정집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 2

회, 회당 1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한글·수식·기초영어 등 기초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금융·교통 이용, 키오스크 활용 등 생활·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하며, 그림과 표현활동 등 인문학적 정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담양/이종욱 기자

신규 문해교실 모집은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학습 공간이 확보된 마을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철원 군수는 "앞으로도 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 구례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제1회 구례 지리산봄길 마라톤대회'가 오는 5월 2일(토)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와 구례군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구례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마라톤 종목 지변 확대와 구례 지역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종목은 하프코스(21.0975km), 10km, 5km 총 3개 부문이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해 지리산의 봄 풍경을 따라 달리게 된다.

'제1회 구례 지리산봄길 마라톤대회' 개최

구례군, 23일부터 하프·10km·5km 종목 참가자 모집

참가 신청은 2월 2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grrun.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모집 인원 4,00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또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도 함께 모집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제1회 대회인 만큼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주민과 전국의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과 문화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고흥군, 2026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기간 운영

쌀값 안정 위해 수급조절용 벼 신규 도입, 하계조사료 단가 인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3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다.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 기간 내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도입하고 알팔파·울무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알팔파·울무·두루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 여건을 한층 개선했다.

주요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밀은 ha당 100만 원, 기타 작물은 50만 원이다. 하계작물은 가루쌀·두루 ha당 200만 원,

알팔파·울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이다. 특히 하계 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옥수수·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이행정검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밀·조사료(동계작물)와 두루·가루쌀·조사료(하계작물)를 이모작 할 경우 ha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법인은 400ha까지다. 동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9월 30일까지 경영체 및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두류의 경우 백태와 콩나물 품은 전년도 전략작물 이행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조절용 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수급조절용 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흥/박도일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Finding Dopamine through Reading). It features a person reading a book in a field of flowers, surrounded by butterflies. Text includes: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and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A QR code is also present.